



## AAPI 쟁점에 관한 오바마(OBAMA)와 맥케인(MCCAIN)의 행보

### 배럭 오바마(Barack Obama):

- ✓ 백악관은 원래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AAPI 의 요구를 만족시키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. 오바마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민에 대한 백악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원상복구시킬 것입니다.
- ✓ 오바마는 존 맥케인(John McCain)에 비해 3 배에 달하는 중류층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AAPI 담당 기관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는 2007 년 대학 학비 절감 및 기회 확대법(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) 통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고속협정영향상환(Fast track Compact Impact Reimbursement)에 연방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소수자 보건 증진 및 의료 양극화 해소 법안(Minority Health Improvement and Health Disparity Elimination Act)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일리노이즈 주 DREAM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2007 년 필리핀계 미군 지원법(Filipino Veterans Equity)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포괄적 이민 개혁법(Comprehensive Immigration Legislation)을 공동 발의하고 이민 백로그 축소 개정안(Amendments to Reduce Immigration Backlog)을 제안하였습니다.
- ✓ 오바마는 하와이와 아시아에 아시아 문화를 접하며 자랐습니다.

### 존 맥케인(John McCain):

- X 2008: 자신이 애초 케네디 상원의원(Sen. Kennedy)과 함께 지지하였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(CIR)을 비난하였습니다.
- X 맥케인은 1 억 1 백만 중류층 노동자는 무시하고 석유업계에는 \$40 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X 맥케인은 공화당 대통령 경선 중에 그간의 태도를 바꾸어 미성년자를 위한 계발, 구제, 교육(DREAM)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
- X 맥케인은 소수자 의료 서비스(Funding for Minority Health Services) 프로그램에 \$5 억 4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
- X 맥케인은 연방 펠 장학금(Pell Grant)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 확대에 계속하여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
- X 맥케인은 2 차 세계 대전 중 억류된 미국계 일본인 후손에 대한 보상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
- X 맥케인은 저소득층 자녀 수백만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동 의료 보험 프로그램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
- X 맥케인은 사회보장기금 민영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1 조 달러 증가하고 AAPI 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훼손됩니다.

--	--